

송원대 평생교육원 '상담사 강좌' 수료식



송원대학(학장 위성동) 평생교육원은 지난 4월24일부터 8월2일까지 15주 과정의 상담심리사, 미술심리지도사, 성폭력 전문 상담사 강좌를 이수한 수강생 115명에게 최근 수료증을 전달했다. <송원대학 제공>

전남경찰 '태안사 전사 경찰관 위령제'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 내 경찰 추모탑에서 박영현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유가족·참전 동지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주기 태안사 작전 전사경찰관 위령제'를 가졌다.

육군 31사단, 신안 기름방제 봉사



육군 31사단(사단장 서경원)은 6일 유조선 충돌사고로 기름 피해를 입은 신안군 자은면 한울리와 둔장 해수욕장 일대에 장병 100여명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육군 31사단 제공>

전남대 간호대, 나주 복룡마을 봉사활동



전남대 간호대학 학생 20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나주시 노안면 영평1구 복룡마을에서 협업·협동 축적 및 발마사지·등마사지 등 의료봉사와 배수관 청소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남대병원 제공>



“세상을 보는 눈, 아이들한테 배웠죠”

교직 퇴임 앞두고 동시집 낸 김용택 시인

‘섬진강 시인’이자 광주일보 칼럼 ‘광일춘추’ 칼럼니스트인 김용택(60) 시인이 40년 가까이 몸 담았던 교단을 떠난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다닌 학교와 동네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시집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창비 펴냄)를 출간한 시인은 “이제 학교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해방감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다”며 퇴임을 앞둔 복잡한 심정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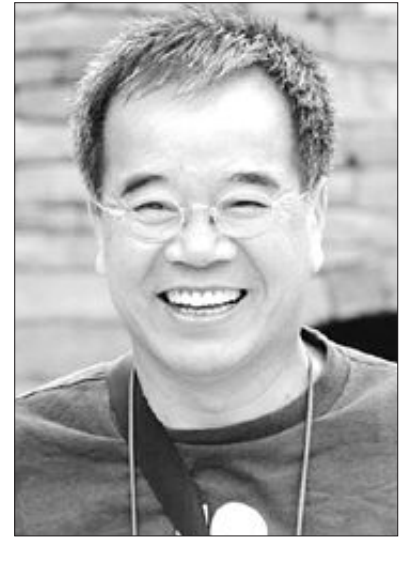
대학 졸업 후 오리농사에 실패하고 1970년 5월1일 전북 임실 청응초등학교 옥석분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이후 교박 38년 동안을 선생님이로 살았다. 38년 중에서도 30년 정도를 시인의 모교이기도 한 지금의 임실 덕치초등학교에서 보냈다. 그러다보니 교사 초년에 맡았던 학생들의 자녀를 다시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 마치 손자 본 느낌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죠.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다해 가르쳐야 했는데 후회도 들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 아프게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젊었을 때 시골 마을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대로 했으니 잘 살았죠. 내 인생에 ‘마침내 그렇게 된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네요.”

어린이와 함께 한 38년...작별인사 담아

김 시인은 선생님으로만 먼저 10년 이상 살다가 1982년 시인 명함을 추가했다. 선생님이 되지 않았다더라면, 오리농사에 성공해 농장 주인으로 남았더라면 시인이 되었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인간을 상대로 평생을 살고 항상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 결



에 있었다는 것에 시 쓰는 데 많이 영향을 준 것은 틀림 없어요. 늘 신비를 갖고 세상을 보는 눈. 삶에 질리지 않는 눈을 아이들에게서 봤습니다.” 교사인 김 시인은 시대와 교육에 대해 진정

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교사가 거의 없고, 교사가 단지 ‘직업인’이 돼 버린 것도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점은 또 있다. 최근 도시 교사 안 됐으면 오리농장 주인 됐을 것

에 살다가 부모의 이혼 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집에 홀로 맡겨진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단다. 전교 45명 가량의 학생 중 7~8명이 그런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번 동시집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와 떨어져 시골로 전학 온 아이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담긴 시들도 많다.

대갈이, 수현이, 세희, 은주 등 이번 동시집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작별인사 삼아 이번 시집과 더불어 9월 초출에는 퇴직과 회갑을 기념해 문단 선후배, 동료들이 마련한 문집 ‘철없는 어른아이’(가계)도 출간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진솔한 삶의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었어요”

고희 지나 첫 수필집 낸 장성 출신 김인숙씨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희(古稀)의 나이에 ‘그 남자는 없었다’란 제목의 첫 수필집을 펴낸 장성 출신 김인숙(71)씨는 이처럼 담담하게 출간 소식을 밝혔다.

수필집에는 소녀에서 여자,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온 김씨의 인생이 여성 특유의 감성 어린 문체와 섬세한 표현으로 진솔해 있다. 그는 제목과 같은 글 ‘그 남자는 거



의 생을 읽는다. 또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온 지난 날의 소소한 기억과 일상, 여행 속에서

기 없었다’에서 40여 년째 의사로 활동하다 어깨뼈를 다쳐 환자가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리를 다친 모습에서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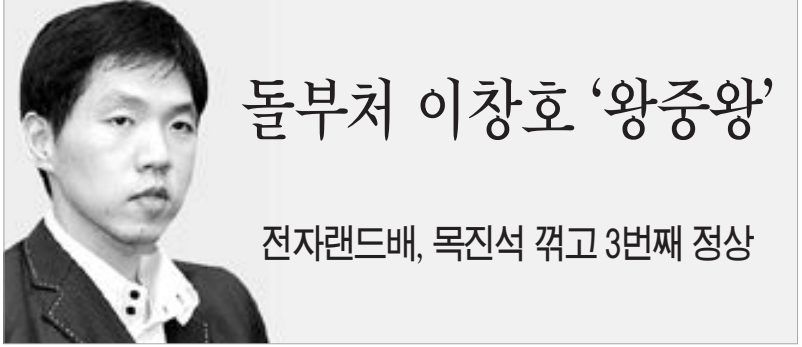
의 생을 읽는다. 또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온 지난 날의 소소한 기억과 일상, 여행 속에서

느낀 단상이 아가자기하게 담겨져 있다.

김씨는 “소녀에서 할머니가 되고 보니 스치고 지난 사소한 기억들이 더 흐려지기 전에 생을 정리하고픈 마음이 간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지역여성 백일장대회를 계기로 2001년 월간 문예사조 수필 신인상을 받으며 늦깎이 등단한 김씨는 광주문인협회 회원,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원, 2008년 에세이스트 등단, 서점과 서사회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돌부처 이창호 ‘왕중왕’

전자랜드배, 목진석 꺾고 3번째 정상

이창호 9단이 목진석 9단을 꺾고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

이창호는 5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결승 3번기 두 번째 대국에서 목진석을 맞아 239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승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벌어진 결승 1국에서 대마를 사냥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이창호는 이어 열린 2국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으로 우위를 선점, 목진석의 맹추격

을 따돌리고 우승상금 5천만원을 차지했다.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 서만 3번째 우승컵을 안게 된 이창호는 중환배, 원익배 십단전, KT배 왕위전, KBS바둑왕전에 이어 5관왕을 차지했으며 6관왕인 이세돌 9단의 뒤를 바짝 추격하게 됐다.

또한 자신의 통산 타이틀 수도 136개로 늘리며 이 부문 1위인 조훈현 9단의 157개에 21개 차로 다가갔다.

/오광복기자 kroh@

최수종, 北 어린이들이 음악회 진행

탈북트 최수종이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 해설 및 진행자로 나선다.

임평용이 지휘하는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는 24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굿네이버스와 ‘쓰리 테너(3 tenors) 콘서트’를 연다.

음악회에는 성악가 신동호, 김남두, 강무림이 출연할 예정이며 굿네이버스 천선대사로 활동 중인 최수종이 해설 및 진행을 맡는다.

공연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시작으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이탈리아 민요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만~10만원. 전화 (02)3444-0071.

안치환, 6년만에 소극장 콘서트

가수 안치환(42)이 홀로 소극장 나들이를 한다. 그간 밴드 ‘자유’와 함께 공연해 온 그가 오랜만에 기타 하나 달랑 메고 관객 앞에 서는 것이다.

그는 오는 22~31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제일교회 세실극장에서 ‘안치환의 혼자 부르는 노래 2’를 무대에 올린다.

2002년 ‘혼자 부르는 노래 1’ 이후 6년 만에 밴드없이 하는 공연이다. 게스트는 시인 정호승·도종환, 가수 함동준·장필순, 대금 한충은 등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 ‘부엉산’,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담백한 기타 솔로로 들어볼 노래를 선사한다. 관람료 4만4천원. 전화 (02)325-256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 진흥중 8회 동창회(회장 이충우)=8일(금) 오후 7시 풍암지구 양가네 해물. 011-648-6039.

모임

▲국제외어이벤트 상무클럽 월례회=12일(화) 오후 7시 동구청 옆 볼로가물치. 010-6688-8983(사무장 조준호).

알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리적 발달·안정에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갈라미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함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

지,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시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문원덕씨 별세 오상근(오상근 정형외과 원장)·세근(자영업)·연근

(\*)·형근(오형근 정형외과 원장)·명근(의사)·금남·금남·미숙·정남·오남씨 모친상 김원진·박성현·김행국·홍석삼·조기남·박대승씨 빙모상=발인 7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김승기씨 별세 엄명천(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낙천(의사)·해천(새로정형외과 원장)·익천(사업)씨 모친상 이승환(전 보성군수)·양석승(광주대 교수)씨 빙모상=발인 7일(목) 서울 삼성의료원 영안실 1호. 02-3410-6901. ▲박길현씨 별세 태일(광주시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씨 부친상=발인 7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경의씨 별세 종대(전 전남드래곤즈 단장)·종채씨 부친상 이현수·이태규·양해승씨 빙모상=발인 7일(목) 광양장례식장 2번소. 061-761-5500. ▲정홍집씨 별세 기석·기오·기태·미옥·미순씨 부친상 이용택(자영업)·최문기씨 빙모상=발인 7일(목)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

4400. ▲조맹순씨 별세 권순철·순옥·영순씨 모친상 용희·용근·용진·용복씨 조모상=발인 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박우성씨 별세 이삼심씨 상배 상규·수정씨 부친상=발인 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두현씨 별세 용희·빈씨 부친상=발인 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양경남씨 별세 나의석씨 상배 호경·영오·정호·덕호·수진씨 모친상 박승탁·김경환씨 빙모상=발인 8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4400. ▲조맹순씨 별세 권순철·순옥·영순씨 모친상 용희·용근·용진·용복씨 조모상=발인 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박우성씨 별세 이삼심씨 상배 상규·수정씨 부친상=발인 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두현씨 별세 용희·빈씨 부친상=발인 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양경남씨 별세 나의석씨 상배 호경·영오·정호·덕호·수진씨 모친상 박승탁·김경환씨 빙모상=발인 8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광주에서 30년 아름다운 정계공민 가짐김묘특별분양 062-222-0201